

- 나쁜녀석 (장천문 글/송수정 그림/어린이중앙)
-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 (윤승은 글·그림/동쪽나라)
- 달라이 라마 (김영만 글/조은숙 그림/꿈동산)
- 구운몽 (김만중 지음/고향란 엮음/김담 그림/청솔)



〈나쁜 녀석〉은 부처님의 전 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불교 경전 <자카타>에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펴낸 책이다. '나쁜 녀석'이란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름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끝에, '이름에 상관없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비롯해 재미있게 읽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열 편의 이야기를 실었다.

지혜·자비의 마음 일깨워

아자열매가 떨어지는 소리를 땅이 무너지는 소리로 오해한 토끼 때문에 숲 속 모든 동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게 되는 '땅이 무너진다!', 겁 많은 멧돼지들이 용기를 가지고 포악한 호랑이에 맞서는 '목수돼지', 간교한 피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해오라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의 모습이 흥미로운 '해오라기와 게의 한판 승부'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지은이는 7개월 동안 미얀마에서 불교명상을 하면서 틈틈이 수집한 불교 이야기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들만 추려내 어린

부처님 가르침 쉽게 만나요

주말, 자녀의 손을 잡고 서점에 간다. 어린이 출판 코너에서 이 책 저 책 뒤적이는 아이 곁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 불서를 찾아본다. 그러나 애써 관심을 갖고 찾아보아야 한두 권 겨우 눈에 들어올 뿐, 수많은 책 가운데 불교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진열되어 있는 책은 몇 년 전에 나온 것이거나, 그림이나 디자인이 눈에 차지 않는다.

이렇듯 협소한 어린이 불교 출판 시장에 대해 부모들은 '왜 불교계에서는 양질의 불교서적을 만들어 내지 않느냐'고 질책하고, 출판사들은 '일반책에 비해 2~3배나 비용을 투자해 어린이책을 만들어도 읽는 사람이 없다고 독자를 탓한다.

최근, '만성적 불황'이라는 출판계에, '가뭄에 콩 나듯' 선보였던 어린이 불서가 연이어 출간됐다.

어린이 위한 佛書 5권 잇달아 나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썼다. 그림은 유네스코 주최 노마콩쿠르에서 <표범의 얼룩무늬는 어떻게 생겼을까?>로 입상한 그림작가 송수정 씨가 그렸다.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와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는 순천대 만화예술학과 교수인 윤승은 화백이 그동안 여러 잡지에 연재했던 것 중 불교 관련 만화란 모아 펴낸 책이다.

1권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는 인도, 중국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 제자들과의 일화를 소개한다. 또한 조주선사와 달마대사 등 중국 선사들의 일화도 만화로 꾸몄다. 2권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편으로 자장율사와 진표율사의 이야기를 비롯해 감자와 내소사 범당, 전등사 은해사 등에 얽힌 설화를 만날 수 있다.

'두심'과 '암행어사 누렁이', '맹공이 서당' 등을 통해 '명랑만화 1세대'로 불리는 윤화백의 정겨운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타베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일생과 철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린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망명정부의 지도자로서 타베트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생애를 그리고 있다.

꿈없이 현대문학으로 재탄생되어 온 김만

자장·진표율사 이야기 담아

중의 '구운몽'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났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새롭게 읽는 좋은 우리 고전' 시리즈 12번째 작품 <구운몽>은 육관 대사의 제자였던 성진이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다시 태어난 후 높은 벼슬에 오르고 아름다운 부인을 얻어 행복하게 지내지만, 그것이 모두 허룻밤의 허무한 꿈을 깨닫는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 즉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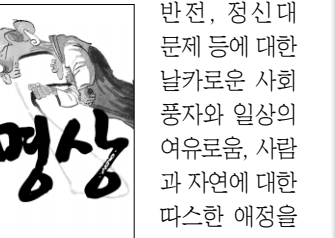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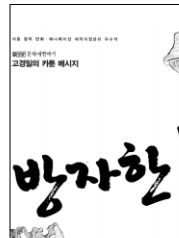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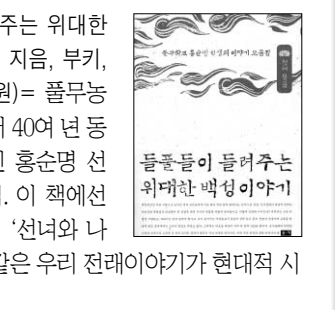
■ <머물고 싶어 떠나는 길> <피안으로 가는 그대> (해강 스님 시집, 이소복, 각 권 5천5백원) = '누가 와서 나더러/ 안녕하시냐고 묻는다면/ 하얀 종이여/ 까만 점 하나 찍어 줘야지/ 그래도 누가 와서 나더러/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 그림은 어쩌나고 해가지(누가 와서 나더러)' 시인 해강 스님이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스님의 시에서는 우리에게 고달픈 삶의 모습과 그 삶과 그 삶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스님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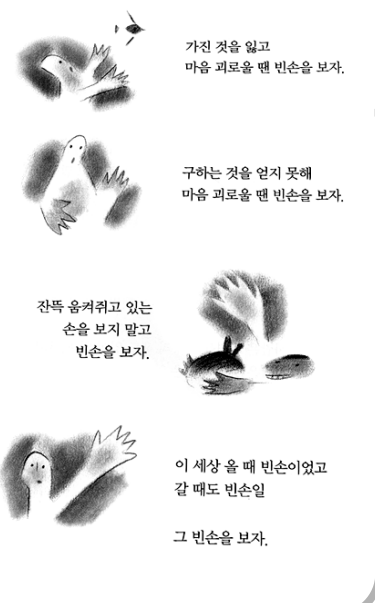
■ <방자한 명상> (고경일 글/그림, 도서출판 명상, 9천5백원)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정신대 문제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던 만화가 고경일 씨의 카툰집. 환경과 발전,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한 날카로운 사회 풍자와 일상의 여유로운, 사람과 자연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물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홍순명 지음, 부키, 전2권, 각권 6천8백원) = 풀무원 직업기술학교에서 4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홍순명 선생의 이야기 모음집. 이 책에선 '홍부전', '홍환전', '선녀와 나무꾼', '홍길동전' 같은 우리 전래이야기가 현대적 시각에서 재창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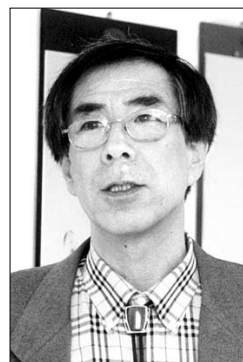
“삶의 지혜·깨달음을 그림으로”



'명상의 바다에서...' 펴낸 이규경 화백

"거창하게 '명상'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솔직하게, 느낀 대로 그렸습니다. 제 그림을 보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유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이규경(56·사진) 씨가 '몸'과 '마음', '복' 세 권으로 나누어진 <명상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삶의 지혜> (중이겨울) 시리즈를 펴냈다. 지난해 선보인 <애고프면 밥먹는다>를 대폭 보완해 펴낸 이 책은 시처럼 짙직한 동화와 단순하고 귀여운 그림으로 꾸며져 있다. 짧지만 인가에 웃음이 맴돌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하는 깨달음도 담겨 있다. 그의 그림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부터 연재해오고 있는 쌍용그룹 사외보 <여의주>의 '웃음 속의 생각' 코너 덕분이다. 그의 그림을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한다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읽고 나서 마음이 훈훈해졌다'는 중년의 남성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 매혹됐다. 읽는 데는 일 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네 장의 그림 속에 깨달음을 담기 위해 그는 남의 글을 많이 읽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자세히 관찰한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짧은 그림에 어떻게 담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꽃을 보고 '아! 꽃처럼 살면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밤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고 나니 글 쓰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군더더기 없는 필체와 간결한 선으로 이루어진 그의 그림은 '쉽게' 보인다. 그러나 그는 "스케치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이지만, 색칠은 과학적"으로 한다. 보는 사람이 편안하면서도 정겨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

도구들을 앞에 놓고 하루 종일 고민할 때가 많다. "그림을 그리다보면 틀림없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감은 각자의 개성과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과 빨간색 같은 보색관계는 보는 이로 하여금 피로를 느끼게 하지요. 자신의 개성과 주장을 조금만 양보한다면 훨씬 조화로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완벽한 색과 선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대신 "조금 실수해도 여유롭게 응서할 수 있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에게서 삶의 지혜와 깨달음이 절로 묻어난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예시야문 집게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2	가들 수 없는 영혼	팔렌 가조	꿈꾸는 들
3	덕숭산 법랑	원담 스님	덕숭출판사
4	백화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진 스님	조계종출판사
5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6	산문	현진 스님	열림원
7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열불	태원 스님	운주사
9	위빠사나 수행의 길	거해 스님	샘이깊은물
10	합살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야문 전화: (02) 737-0695

우리 전통의 산야초차를 수백년만에 복원, 현대화하기까지의 기록 -

신비로운 치유능력 가진 산야초차!!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우리 산야초차

내가 회색빛 감옥에 갇혀 「야생초 편지」를 썼다면 전문회씨는 산이라는 감옥(?)에 갇혀 이 글을 썼다!!

자연중독자 전문회씨, 내가 자연중독자 전문회씨를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보내온 한 꾸러미의 산야초차를 통해서였다. 나의 책 「야생초 편지」를 읽고 동지침을 만난 것 같은 기쁨에 보냈다는 그 차를 이것을 만든 이가 보통사람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정성들여 만든 백초차를 우려마시면서 이것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을 통째로 내 몸에 모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엔 전문회씨가 발로 뛰어 만들어낸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는 산야초차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산야초차의 무궁무진함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전문회씨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동지침을 느꼈다. -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저자 사인회를 합니다.

- 장소 - 교보문고(광화문점)/시간 - 11월 29일 오후 3시
- 교보문고(강남점)/시간 - 12월 6일 오후 4시

교보, yes24, 영풍, 인터파크 화제의 신간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

전문회씨는 2004년

전문회 글 | 김문호 사진 | 304쪽 | 19,500원

전 화: (02) 2279-4788 / 팩스: (02) 2285-6798 화남